

육근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것을 놓으세요!

19면에서 계속

한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문 불교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인간 문제의 해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 고(苦)의 해결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초기 경전에서 오온, 십이처, 심팔계의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체 법의 참된 모습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고, 집착함으로써 그것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기에 물질과 정신이 모두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스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한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인지요?

답 한마음이라는 그 뜻은 열반으로 들어가는 길이며, 자유인이 되는 길이며 해탈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아는 사대(四代)에 대해서 말합니다. 색(色)은 사대라고 하고 수상행식(受想行識)은 바로 정신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신 내용, 수상행식 그 자체가 사대하고 같이 합쳐지니까 몸과 마음을 말합니다. 그 몸과 마음은 어디에 또 상대가 있는지는 애기죠. 눈이나 귀나 코나 혀나 몸이나 의식 자체, 여섯 가지가 거기에 대두되는 거죠. 요거를 말씀해 놓고 내가 얘기할 게 있습니다. 거기서 대두되는 것이 뭐냐 하면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이 대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대두가 되느냐 하면, 즉 말하자면 육식(六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미각·촉각, 의식 자체 여섯 가지가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나누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제 애길 들어 보시겠습니까. 그게 내 가지입니다.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네 가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개수가 없는 개수를 한번... 숫자 없는 숫자요. '하나' 하면 '몸'과, '몸' 그러면 '하나' 이렇게 합니다. 하나라고 치면 육근(六根), '둘' 이됩니다. 내용적으로는 사대(四代)의 그 물질과 사람의 마음이니깐요. '하나, 둘' 하면 이 하나는 과거로 벌써 돌아갔습니다. 예? '하나' 하는 게 벌써 몸과 마음은 벌써 과거로 돌아가서, 즉 말하자면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이 육근이, 안 그렇까요? 그래서 '둘' 할 때 육근으로 와서, 벌써 이 하나는 둘에 포함이 되니까 하나는 없어지고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둘 하는 게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상대성이 절대성으로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게 도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육근(六塵)이라고도 하고 육경(六境)이라고도 합니다만 육진으로 다시 들면 그냥 셋이

됩니다. 그런데 둘이 또 없어집니다. 둘이라는 언어가 없어지면서 셋으로 갑니다. 셋으로 가는데 이 셋은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아셔야 납득이 돼서 결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입니다. 육식(六識), 육식으로써 이것을 다시금 혼합을 한다면 심팔계가 되면서 이것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데 합쳐서 심팔계라고 했는데 심팔계는 무엇을 가지고 그러느냐 이런 겁니다. 심(心)은 언제나 여여하게 들어가는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팔(八)은 사무사유(四無所有)를 한데 합친 것을 말하죠. 여러분이 다 마음이 있죠. 여러분이 있으니까 있는 거지요. 불성이라는 그 자체가, 불(佛)이라는 자체가. 그것은 항상 움직

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켜서 밥을 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주인공!
네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너도 없고
내 모습도 없을 것이다.

주인공!
네가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이 있으니
네가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을 해야지!

거러지 않기 때문에 심팔(八) 하면 벌써 십구(十九)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언제나 거기 우뚝 서는 거죠. 그래서 사무사유가, 즉 말하자면 한데 합쳐서 팔로써 팔법륜(八法輪)으로서 그냥 돌아 갑니다. 그게 우리 생활입니다. 심은 진리라고 하면 우리가 응용하는 이 응용은 바로 팔이죠. 이걸 그냥 납득할 수 있게 해 드리고 싶어서 그냥 내 의견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건데 바로 벗어나는 그 자체가, 하나 없는 하나가 그냥 한마음입니다. 한마음, 하나라는 것도 세를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한마음입니다. 대략 짐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비유하건데 만약에 몸과 마음이 솔이랑 솔이랑 너에게 줄 것이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요? '하'는 뜻이 무엇인지요?

지금 내 몸통이 속에 수많은 중생들이 들어 있는데 이 중생들이 누구냐 하면 자기입니다. 그렇게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숫자가 많으면서도 의식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숫자 없는 숫자요. 그래서 그 하나마저도 없다고 하는 그 도리를 부처님께

고,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거에서 부터 자기가 지은 대로 나온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속명통(宿命通)이라는 게 바로 모든 것이 입력된 컴퓨터거든요. 컴퓨터에 입력된 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받으려면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팔자니 운명이니 하고 울고 아탄법칙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것을 거기다 맡겨 놓으면 앞의 것이 다 무너질 텐데 왜 거기다 맡겨 놓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고깃덩어리가 '나'가 아니라 바로 마음과 그 기관이 작용을 해서, 안에까지 들어가서 과거에 살던 그 의식까지도 다 하나로 뭉쳐져서 그냥 자동적으로, 거기다가 맡겨 놓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앞의 것은 없어집니다. 날으면 날는 대로 없어지고 또 날으면 또 앞의 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때문에 항상 그곳이 비어 있는 까닭이죠.

그래서 집이 비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데 이 거를 어떻게 감당하 나가니까? 그래서 부처님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71004-중-1788호 (광고)

퇴행성 류마티스 - 관절염 한방(韓方)치료한다.

중정한의원 왕 원장은 통상관절염이란 관절의 염증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되어 뼈의 기형화를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킨다. 왕 원장은 "한방 치료를 통하여 관절염의 고질인 통증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한다."

◆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나이가 들에 따라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가 희고 동맥경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절 안의 연골소위 말하는 물렁뼈에 주름이 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성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병으로서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어느 연령에서든지 발생할 수가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이후 5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주로 침범하는 관절 부위가 서로 조금씩 다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손목, 무릎, 발목 같은 관절에 많이 오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 무릎 혹은 발목, 척추 그중에서도 요추 같은 체중이 실리는 즉 몸무게가 많이 실리는 관절에 주로 나타난다고 왕 원장은 말한다.

◆ 관절염 통증 치료한다.

관절염은 그 정도에 따라 경중(輕症), 중중(重症), 중중(重症)으로 나뉘며 초기관절염은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정도이고 중기에는 관절 주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은 심해지고 통증이 지속되면 2일~3일간 지속된다. 말기에는 통증이 극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어려움을 느끼며 최악의 경우 관절 모양 자체의 변형이 유발되기도 한다. 왕 중권 한의학 박사는 "한방 관절염 치료를 통하여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밤에 고통 없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관절의 상태를 되돌리는 데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의 경우 1~2개월의 한방치료가 가능하며 중중(重症), 중중(重症)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3~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중정한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종래와 비밀한 자연산 참 다슬기 살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식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생애 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반 겹대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동시킵니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식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달립니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립니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 주문하시면 (생선)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선) 달여됨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당뇨병 한방(韓方)으로 치료한다.

당뇨병을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는 중정한의원 왕중권 원장

당뇨병 이시죠? 이것은 한의학에서 소갈증이라 한다. 주로 입이 마르며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갈증이 심해진다. 이것이 당뇨병의 합병증이다. 한의학에서는 당뇨병의 원인을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절제한 식생활 그리고 정신적 과로 유전병과 연관 있다고 본다. 치료 방법에 있어서 상소(上消), 중소(中消), 하소(下消) 세 가지 유형을 나누면서 치료한다.

당뇨병은 초기 금식으로 오는 당뇨병은 한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다. 시간이 오래 경과된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병으로 오는 합병증 치료에 비중을 두며 장기적으로 한의학 치료의 시야로써 운동요법 등으로 임상에서 이미 많은 효과를 보였다. 당뇨병은 하나의 만성질환이므로 짧은 시일 내에 어떤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에 임해야 되고 음식에 있어서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하게 음식물을 섭취해야 된다. 운동도 적당히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혈당과 요당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정한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